

Latin American Culture

문화예술

마우리시오 발디비에소와 에콰도르 풍경화

홀리오 세사르 아바드 비달

에콰도르 안데스 산맥의 풍경화는 18세기 후반부터 역사적으로 주목 받았다. 알렉산더 본 훔볼트, 프레데릭 에드윈 처치와 같은 비-에콰도르 화가들을 비롯하여 에콰도르 국내에서는 라파엘 트로야, 루이스 마르티네스와 같은 화가들의 작품이 특히 주목받았다. 오늘날에는 그 명맥을 아수아이 주(Azuay) 태생의 마우리시오 발디비에조가 이어가고 있다. 그는 여러 화산의 표상에 대한 작품들을 그리는 발디비에조는 에콰도르 풍경화의 기념적이고 가치있는 계승자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에콰도르의 안데스 산맥은 유명인에게도 과학적, 풍경화적 관심과 주목을 불러일으켰다. 1736년 6월에는 파리 과학 왕립 연구소에서 키토를 동반하였다. 당시 소장이었던 수학자인 루이 고댕, 지리학자였던 샤를 마리 드 라 콩다민, 물리학자 피에르 부게, 식물학자이자 생물학자였던 조셉 드 주시우 그리고 여섯 명의 기술자들로 구성되어있었다. 연구팀의 목표는 적도선과 가까운 자오선의 고도를 측정하기 위해 당시 지구의 극이 있었는지, 예를 들어 아이작 뉴턴이 처음으로 가정했던대로 지구가 납작하지 않은지 지구의 형태를 확인하는 것이었다.¹⁾ 이후 19세기 동안 에콰도

1) 같은 목적으로 두 번째 연구팀이 피에르 루이 모로 (Pierre-Louis Moreau de Maupertius)의 지시에 따라 북극 주변 지역의 라플란드(Lapland)로 보내졌다. 야루키와 타르키 사이자오선 측정의 목표는 1736년 9월에서 1743년 9월까지 6년이 걸렸다. 그때까지 라플란드 탐험대원들은 이미 뉴턴의 타당성을 입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콰도르 원정대는 피에르 부게(Pierre Bouguer)의 계산에 따라 적도의 길이를 측정하는 정확성과 더불어 자오선에 위치한 안데스 산봉우리의 고도에서 부게의 계산의 미분 오류는 20 세기에 발견되



발디비에소, 〈분지〉 (캔버스에 유화, 70 x 90 cm, 2017년)

르의 안데스 산맥은 과학적 탐구를 위해 많이 방문하는 곳이 되었고 프랑스 학자들의 노력과 더불어서 프루시아의 알렉산더 본 훔볼트는 과학계, 특히 식물학계에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되었다. 실제로 훔볼트와 아미에 봉플랑은 오리노코 강, 쿠바의 섬에서 연구를 시작하여 막달레나 강을 가르며 안데스 산맥까지 범위를 확장하였다. 1802년 1월에 키토에 등반하여 8개월 간 화산 연구를 위해 정착하였고 연구는 이동에 따라 2~3주가 연기되기도 하였다²⁾. 훔볼트의 기록물은 이후 유럽에서 히트를 친 『아메리카

었다.

- 2) 가령 연구팀은 1802년 6월 23일 침보라조(Chimborazo)에 올랐으나 5,400미터의 고도에 도달하기 전에 고산병으로 하산해야했다. 해당 팀에는 집꾼, 과학자 세 명, 위의 언급된 학자들 그리고 카를로스 데 몬투파르로 구성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미터 측정에 따르면 그들은 5,881미터를 올랐으며 훔볼트가 당시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고도에 도달했던 빌헬름 리스, 모리츠 알폰스 스투벨, 모리크 바그너가 5,900미터에 도달하여 정상을 300미터 남겨두었을 때, 에드워드 워퍼가 “에콰도르 안데스의 여정(1892년 런던)”을 출간하였다. 해당 저서에는 장 안토니와 루이 카렐이 마지막으로 1880년 1월 4일에 침바라조를 오르는데 성공했다고 기술되어있다.



발디비에소, 〈양 떼〉 (캔버스에 유화, 60 x 80 cm, 2018년)

원주민의 건축물과 산맥에 대한 견해』(1810)³⁾의 바탕이 되었다. 마찬가지로 과학적 탐구는 예술가를 동반하여 이루어지기도 했는데, 그 중 라파엘 트로야(1845~1920)가 있었다. 그는 1870~75년 활발한 활동을 펼쳤던 빌헬름 리스와 모리츠 알폰스 스투벨이 이끄는 독일 팀에 의해 고용되었다. 또한 외국 예술가들도 있었는데, 한스 메이어(1858~1929)의 연구 팀에는 뮌헨 태생의 루돌프 리슈레이터(1868-1938)가 한스 메이어가 유럽으로 돌아와서 1907년에 출판한 연구서 『에콰도르의 고지대 안데스에서』(In den Hoch-Anden von Ekuador)에 24개의 작품이 석판 인쇄되어 실렸다.

같은 방식으로, 다른 화가들도 눈으로 덮인 안데스 산맥에 이끌려 많은 작품을 남겼다. 그 중 가장 주목받는 허드슨 리버 화파에 속하는 프레드릭 에드윈 처치(1826~1900)를 꼽을 수 있다. 그는 특히 훔볼트의 탐험

3) 이와 관련해서 스페인 번역본은 다음을 참조. HUMBOLDT, Alejandro de: Vistas de las cordilleras y monumentos de los pueblos indígenas de América. Tr. de Gloria Luna Rodrigo y Aurelio Rodríguez Castro. Madrid, UAM Ediciones y Marcial Pons, 2012.



발디비에소, 〈벼랑〉 (캔버스에 유화, 70 x 50 cm, 2017년)

연구에 매료되었다. 1859년 5월 6일 89세의 나이로 훔볼트가 사망하였을 당시, 소식을 듣지 못했던 상당수의 관중이 뉴욕에서 훔볼트에 영향을 받은 작품을 관람하는 대조적 모습을 남기기도 하였다. 그 중 유명한 작품으로 〈안데스의 심장〉(1859년 작품, 캔버스에 유화, 167,9 x 302,9 cm.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을 꼽을 수 있다.⁴⁾

4) 훔볼트에 관한 전기인 자연의 발명(2015)에서 안드레와 울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설명한다. “그의 그림은 관중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아 그의 그림을 보기 위해 코너를 돌아 줄으 실 정도였다. 안데스의 모든 영광을 표현하는 3x1.5m의 그림을 보기 위해 25센트를 지불할 정도였다. 그림의 중심에 있는 급류가 너무 현실적이었던 나머지 관중들은 거의 물이 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였다. 나무, 나뭇잎, 꽃 역시 정확하게 표현되어서 어떤 종류인지 바로 파악할 수 있었다. 주목의 근원에는 눈덮힌 산을 표현하는 장엄함이 있었다. 처치는 훔볼트의 예술과 과학을 이으려는 갈망에 가장 잘 응답한 화가였다. 그는 훔볼트를 너무나도 동경한 나머지 남아메리카에서 그의 흔적을 추적했다. 『안데스의 심

앞서 언급한 화가들의 작품 활동과 같이 마우리시오 발디비에소(1974년 에콰도르 아주이주 산타 이사벨 출생) 풍경화가로서 데뷔하여 생생함과 장엄함 사이에서 활동하였다. 그의 작품에서 일관적으로 보이는 특성은 아주아이의 산맥에 일상적 풍경을 그렸다는 것이다. 또한 에콰도르의 설경을 그리며 에콰도르의 장엄함을 표현하였다. 발디비에소는 에콰도르 내에서 아마도 풍경화 분야에서 가장 주목받는 화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산맥을 그리는 다비드 모스코소(1979년 암바토 출생), 산지 보다는 해안가의 아름다운 수목 풍경을 고유의 창조 기법으로 그리는 세르비오 사파타(1969년 사무라 출생)를 꼽을 수 있다⁵⁾.

마우리시오 발디비에소는 쿠엔카 카톨릭 대학교에서 건축학을 전공하였으며 이후에도 건축에 전문적으로 종사하였다. 그는 예술계에서도 전문 교육을 받았는데, 2013년 쿠엔카 대학교의 예술학부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1998년 쿠엔카, 아주아이 갤러리에서 처음으로 개인전을 개최하였고 2000년에는 퍼시픽 은행 갤러리, 2014년에는 현대미술시립박물관 등을 비롯하여 여러 곳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그 중 2017년 개인전은 에콰도르에서 가장 알려진 갤러리스트인 마텔라인 홀랜더의 지휘 아래 과야킬의 오로 베르데 호텔에서 열렸다⁶⁾.

발디비에소의 풍경화 작업과 특히 안데스 풍경에 관한 작품들은 자연된 고찰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고찰’ 시리즈⁷⁾는 관중을 초대하여 자연을 누리는 것과 동시에 진보의 환상이 강타하는 오늘날 자연의

장』은 지질학, 식물학, 과학적으로 가장 섬세하게 표현된 작품이었다. 이것은 홈볼트가 캔버스에 구현한 개념이었다. 그 작품은 관중들이 남아메리카의 자연 공간으로 이동하게 만들었다.” 처치는 홈볼트와 그의 작품인 코토팍시 (1862년, 캔버스에 유화, 122 x 216, 디트로이트 예술원)에 관해 1863년 3월 17일 뉴욕타임즈에 “새로운 세상의 예술적 홈볼트”라는 제목의 글을 남겼다. WULF, Andrea: La invención de la naturaleza. Tr. de María Luisa Rodríguez Tapia. 번역 Barcelona, Penguin Random House, 2016, p. 344. 참조

5) 이에 관한 연구로는 다음의 저서를 참조. 세르비오 사파타(과야킬, 2016)는 해당 저서에서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작품을 다룬다. 해당 저서는 저자에 의해 2016년 11월 23일 과야킬 콜론 힐튼 호텔에서 소개되었다.

6) 당시 과야킬 출신의 화가들로 구성된 라 아르테팩토리아에서 마르코 알바라도나 호르헤 벨라르데 같은 화가들이 있었다. 이들의 작품에 대한 설명은 다음의 글들을 참조. “마르코 알바라도, 정그림을 추구하는 에콰도르 현대 미술가” 트랜스라틴. n° 34, 2016 9월, pp. 75-82. 박병규 번역, “회화적 상상의 대가 호르헤 벨라르데-홀리오 세사르 아바드 비달” 트랜스라틴 n° 38, 2017년 9월, pp. 95-102. 이경민 번역.

7) 이 시리즈는 2014년 10월 쿠엔카 현대미술시립 박물관에서 열렸던 개인전의 제목이기도 하였다.

풍경이 위협받는 것에 대한 사색을 가능하게 한다.

몇몇 그림에서 발데비에소는 트럭, 작은 규모의 공사판 등으로 일상, 풍경적 요소들을 나타낸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의 작품들은 인간의 손이 미치지 않는 세상을 그린다. 그가 그리는 세상은 낭만주의 예술가들이 그리던 영혼의 세계와 매우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대학 발간물을 위해 개인적으로 요청했던 글에서 2017년 봄 글은 아직 미출간 되었는데, 여기서 마우리시오 발디비에소는 예술가로서 사명에 대해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그의 말을 일부 빌려오면 다음과 같다.

유년 시절 처음으로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한 고찰을 하게 되었다. 자연에 대한 호기심과 감수성은 시간이 흐르면서 매우 깊은 사명감과 열망으로 바뀌었고 예술을 사랑하게 되었다. 점점 단순히 그리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을 설명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오히려 정반대로 토양은 고양되어 크게 장엄하게 표현되어야한다는 것을 알았다.

이 태도는 낭만주의의 결실이기는 하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풍경화가의 목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그가 그리는 일상의 풍경에는 일종의 회한이 묻어있다고도 할 수 있다. 그가 건축에 종사하였다는 것을 고려하였을 때, 이제 사용되지 않는 에콰도르 건축 양식에 특히 주목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허수진 옮김]

홀리오 세사르 아비드 비달 — 마드리드 자치대학교(UAM) 문학박사. 현재는 에콰도르 쿠엔카대학교 인문대학 연구교수

허수진 —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외교학전공 석사과정